

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

2005. 4. 6

 **대외경제정책연구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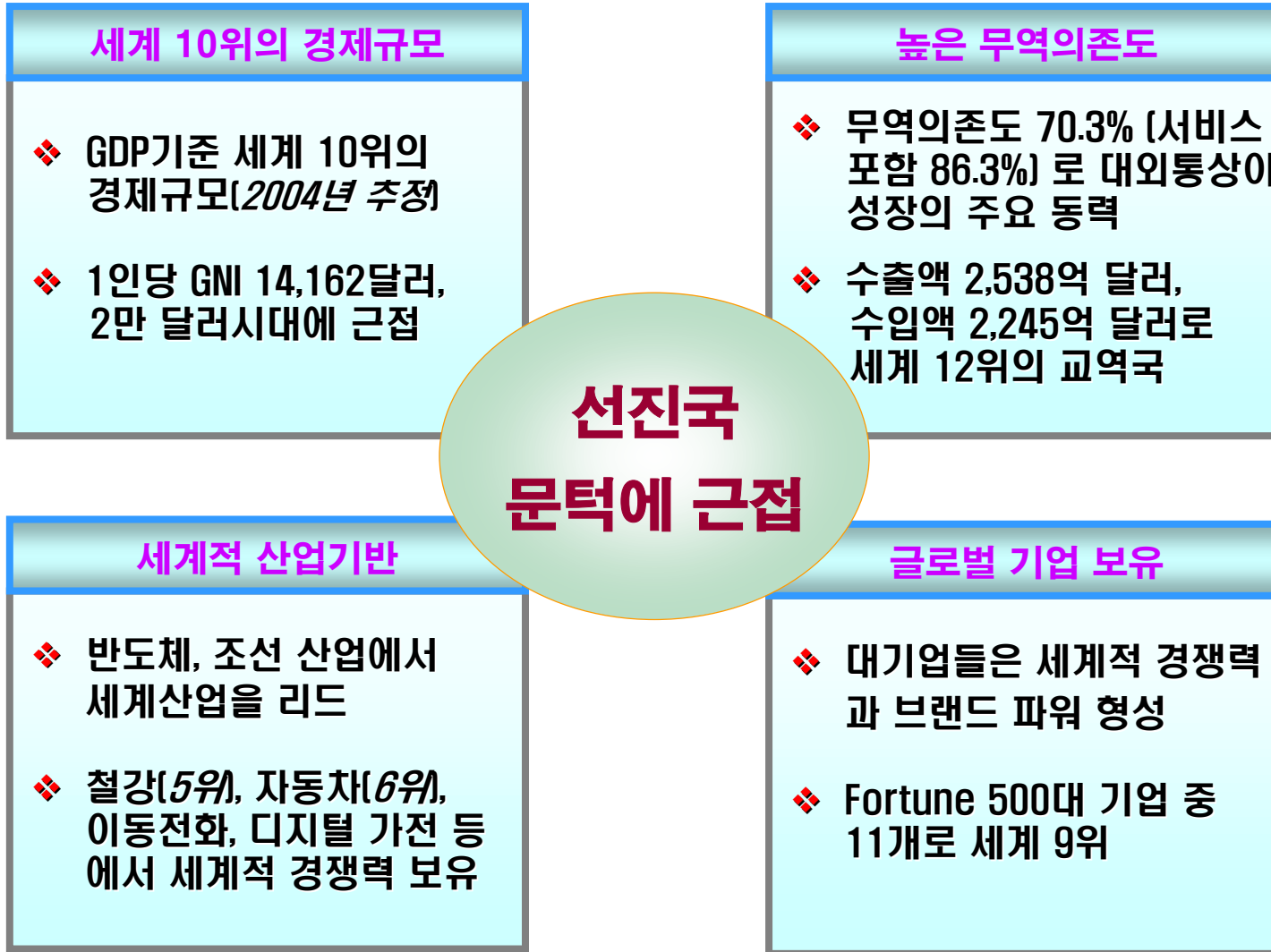


전체 구성

- I. 왜 선진통상국가인가?
- II.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?
- III.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?



우리 경제의 현 단계



(2004년 현재)



선진화 과정의 도전

1. 왜 선진통상국가인가?

성장잠재력 위축

- ❖ 성장잠재력 위축 징후
 - 80년대: 8.7%
 - 90년대: 6.2%
 - 00년대: 4.6%
- ❖ 최근 투자부진 등 요소투입 확대가 미흡하며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도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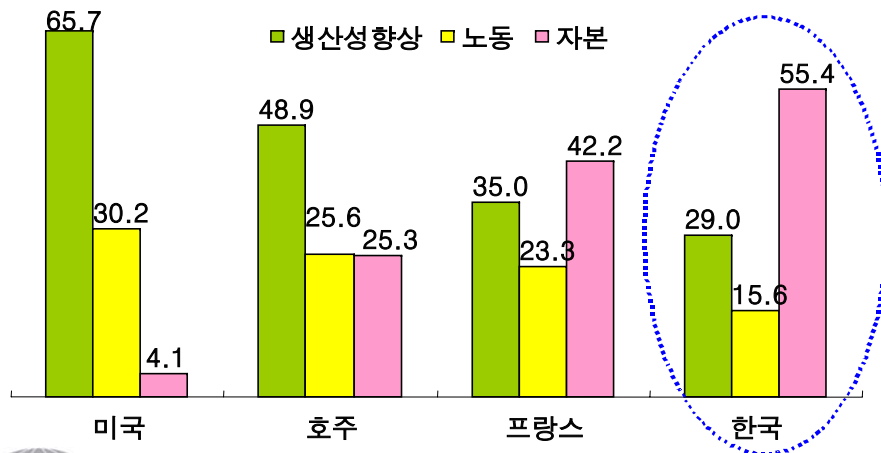
선진국형 경제문제 등장

- ❖ 고용 없는 성장, 고령화, 양극화 등 선진국형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압박 요인
- ❖ 선진국은 순차적 대응이 가능했으나, 우리는 다수의 난제가 중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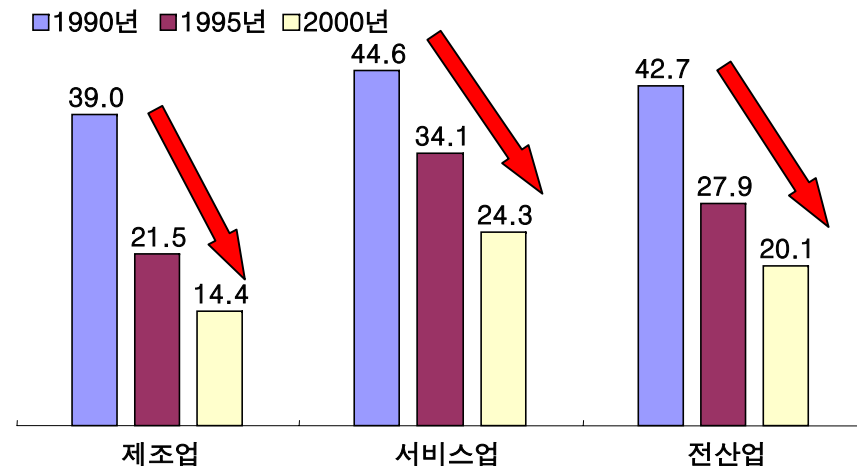
이해 갈등 확산

- ❖ 민주화 진전 및 가치의 다원화로 갈등 영역 확대
- ❖ 통상관련 갈등 심화
 - 첨예화 : 피해보상과 직결
 - 상시화 : 동시다발적 FTA
 - 일상화 : 쌀,영화,교육,의료

생산성 향상의 경제성장 기여도 (90~00년, %)



산업별 취업유발효과 (명/10억원)





글로벌화에 따른 도전

1. 왜 선진통상국가인가?

세계경제 통합과 지형변화

- ❖ 다자·지역간 경제통합 진전
 - WTO 회원국 148개국, FTA 162건 체결 (2005년)
 - 통합불참으로 기회비용 증가
- ❖ BRICs의 부상에 따라 기회와 위협 병존
 - BRICs의 세계 GDP 비중 ↑
2004 8.9% → 2025 14.3%
[Global Insight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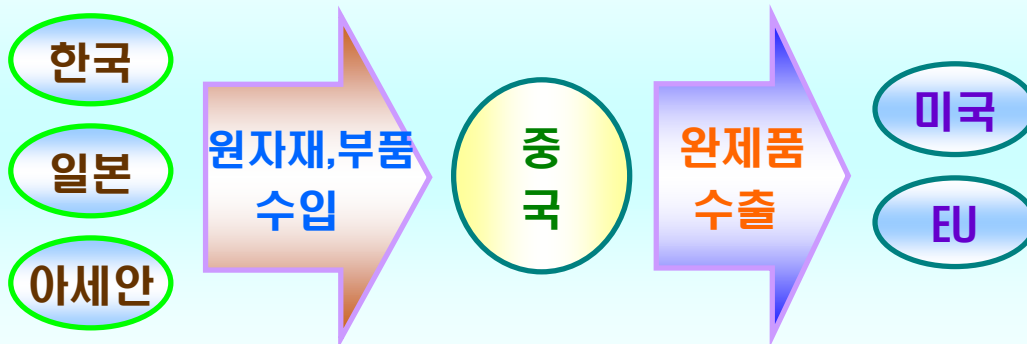
글로벌 네트워킹 심화

- ❖ 상품 이동 → 자본·기술·노동 등 생산요소의 활발한 이동
- ❖ 판매 활동의 세계화 → 생산 활동의 세계화
- ❖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허브로 하는 새로운 분업구조 형성

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

- ❖ 국내규범·제도·정책의 국제적 조화가 요구
 - *cross border* → *beyond border*
 - 수출 및 투자유치와 직결
- ❖ 개방과 개혁의 부조화는 개방이익 잠식
 - 산업지원 → 통상마찰 소지
 - 개혁·개방을 조화시키는 로드맵

동아시아의 새로운 분업구조



기업의 글로벌화

(200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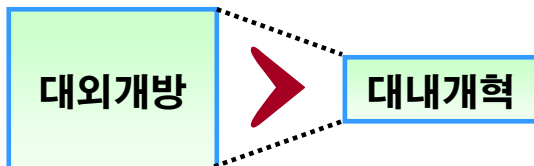


<참고> 개혁과 개방: 남미 사례

멕시코: 개방에도 불구하고 개혁 부족으로 절반의 성공

- ❖ 1980년대 말부터 FDI 유치 위해 적극 개방
 - 현재 NAFTA 등 43개국과 FTA 체결
- ❖ 개방이익 극대화하는 국내 개혁 정책·전략 미흡
 - 저부가가치 수출산업 위주 발전, 북미시장 과다 의존, 중소기업 붕괴 등 심각한 난관 봉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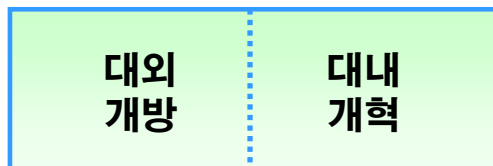
결합미흡



칠레: 개방과 개혁의 조화 통해 성공

- ❖ 2003년 전품목 단일 관세 (6%) 적용
 - 전세계 최다 FTA 체결
- ❖ 거시균형, 빈민층 보호, 경제국제화(3대 정책 목표)를 일관성 있게 추진
- ❖ FDI 유치 통해 1991~00년 연평균 7% 이상 고성장

시너지



아르헨티나: 개방과 개혁의 부조화로 경제위기 직면

- ❖ 1980년대 말부터 뒤늦게 개방정책 실시
 - 준비와 전략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
- ❖ 정치·사법·노동·재정개혁 등 구조개혁 정책이 주체 세력의 부재 및 이해집단 반발, 정치적 리더쉽 부재로 지체되어 경제위기 촉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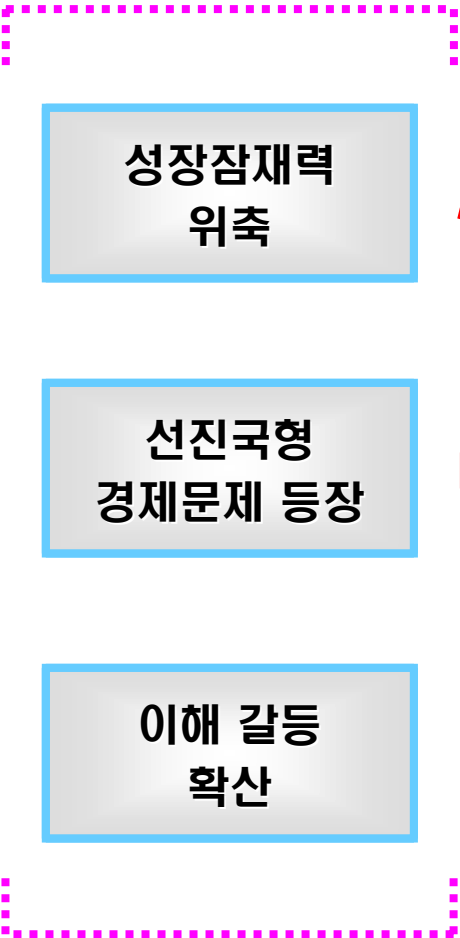
부조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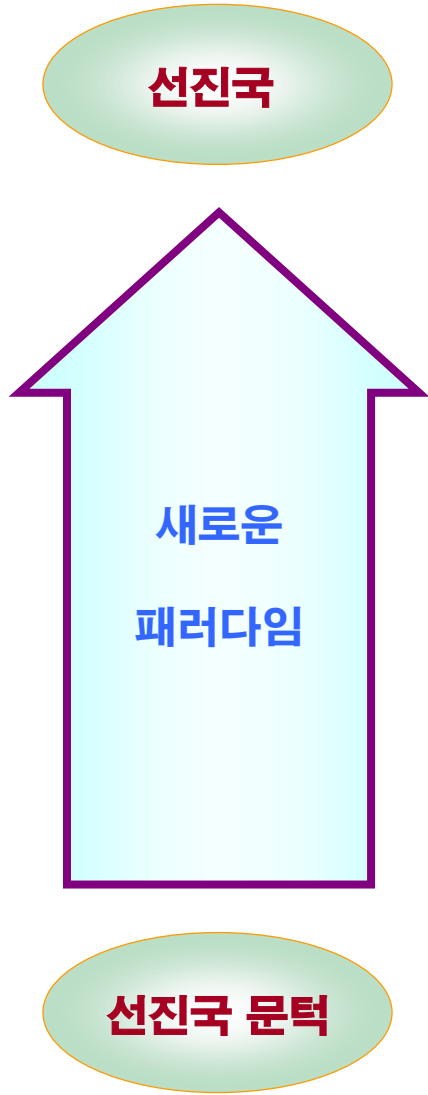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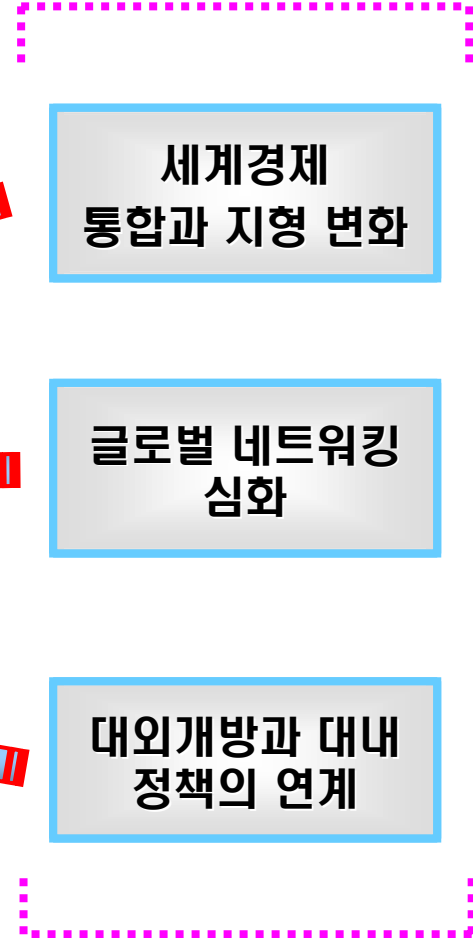


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

선진화 과정의 도전



글로벌화에 따른 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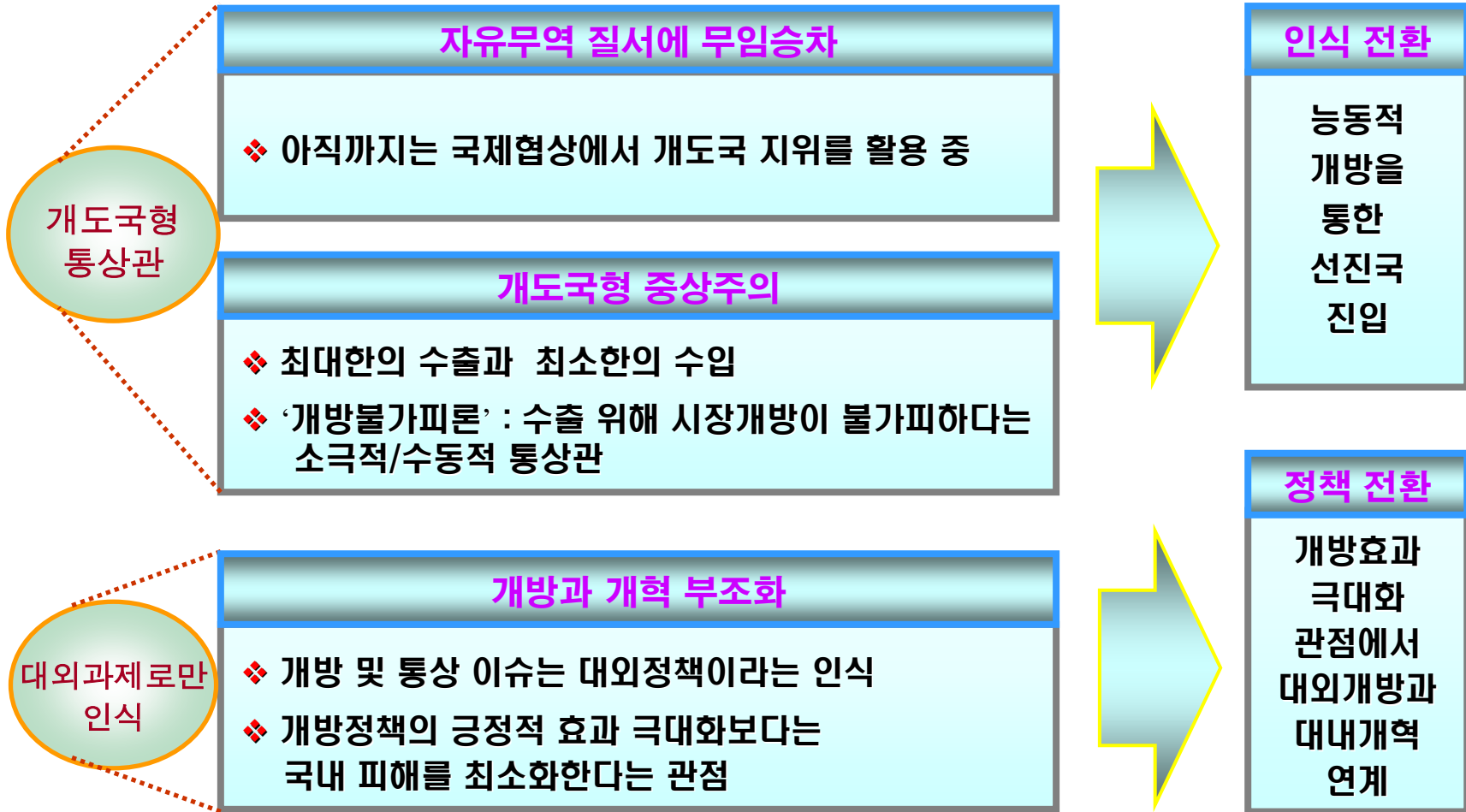




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

기존 패러다임

패러다임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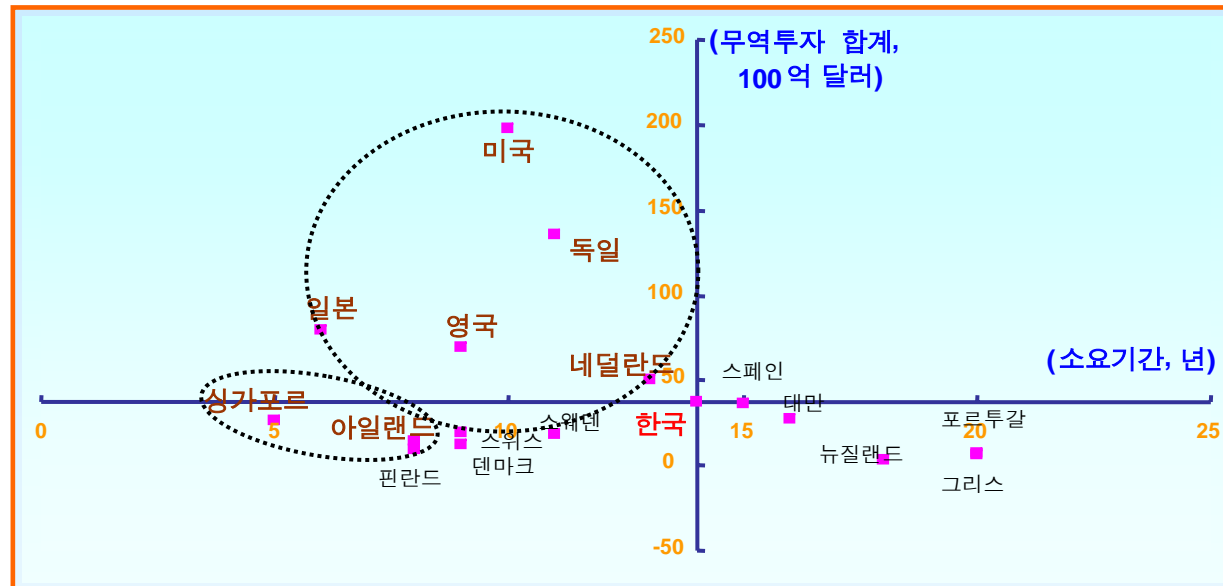




사례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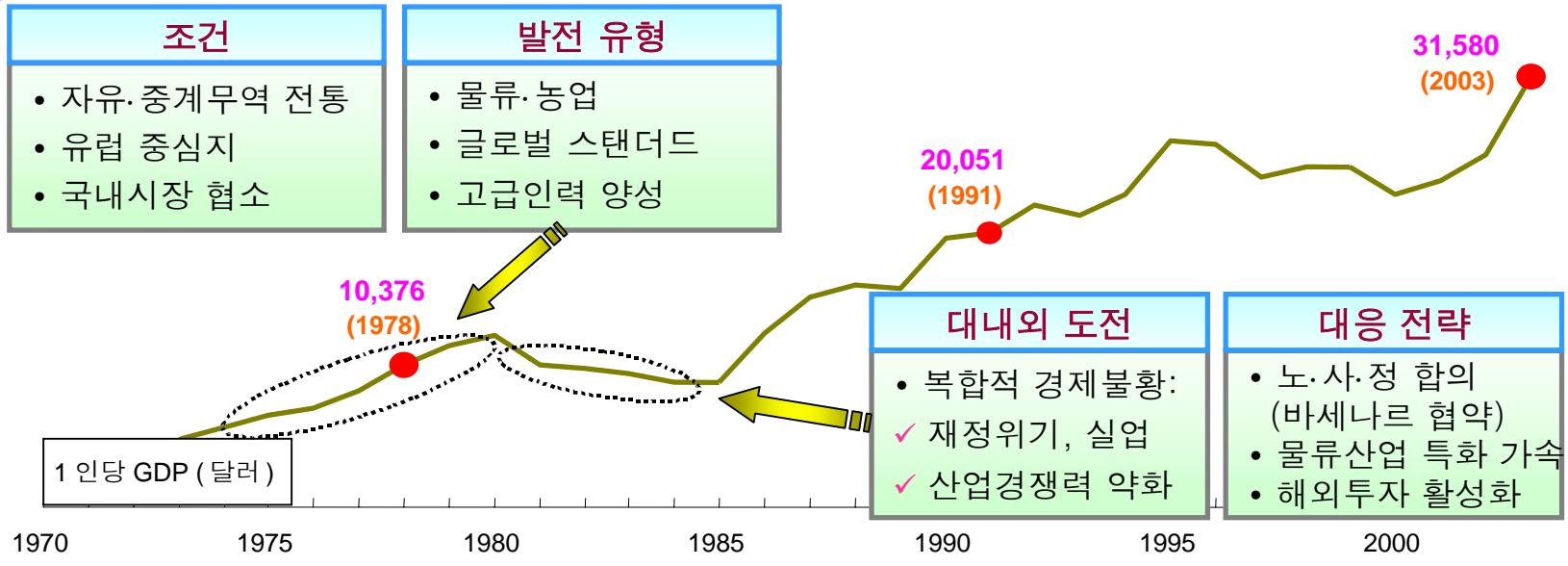
II.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?

- ❖ **선정 기준** : (2만 달러 달성국 중 소요기간 ↓, 무역·투자규모 ↑ 상위 5개국) + (대표적 통상국인 아일랜드 및 싱가포르)
- ❖ **7개국 사례** : 네덜란드, 아일랜드, 싱가포르, 영국, 독일, 미국, 일본
- ❖ **각국별 고유한 발전유형 파악, 대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**





네덜란드: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



조건

- 자유·중계무역 전통
- 유럽 중심지
- 국내시장 협소

발전 유형

- 물류·농업
- 글로벌 스탠더드
- 고급인력 양성

대내외 도전

- 복합적 경제불황:
- ✓ 재정위기, 실업
- ✓ 산업경쟁력 약화

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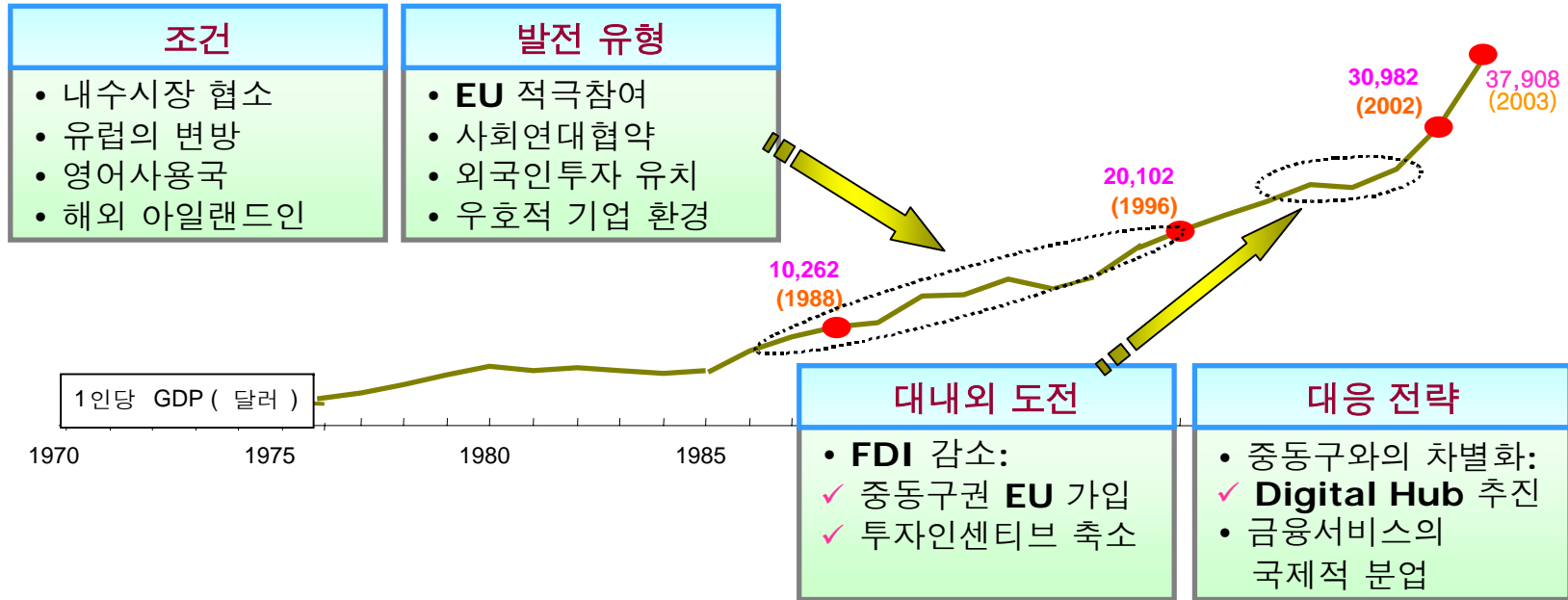
- 노·사·정 합의 (바세나르 협약)
- 물류산업 특화 가속
- 해외투자 활성화

- **비즈니스 환경**: 1999 ~ 2003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 국가로 선정 (EIU)
- **양질 노동력**: 영어구사자 77%, 독일어 구사자 59%
- **해외투자**: 1인당 해외투자 세계 1위(2,228달러, 2003년), 영국(921달러), 미국(516달러)

- 시사점**
- ❖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에 특화(물류·원예)
 - ❖ 사양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(가스산업)
 - ❖ 노·사·정 합의로 위기 극복, 경제 안정(바세나르 협약)



아일랜드: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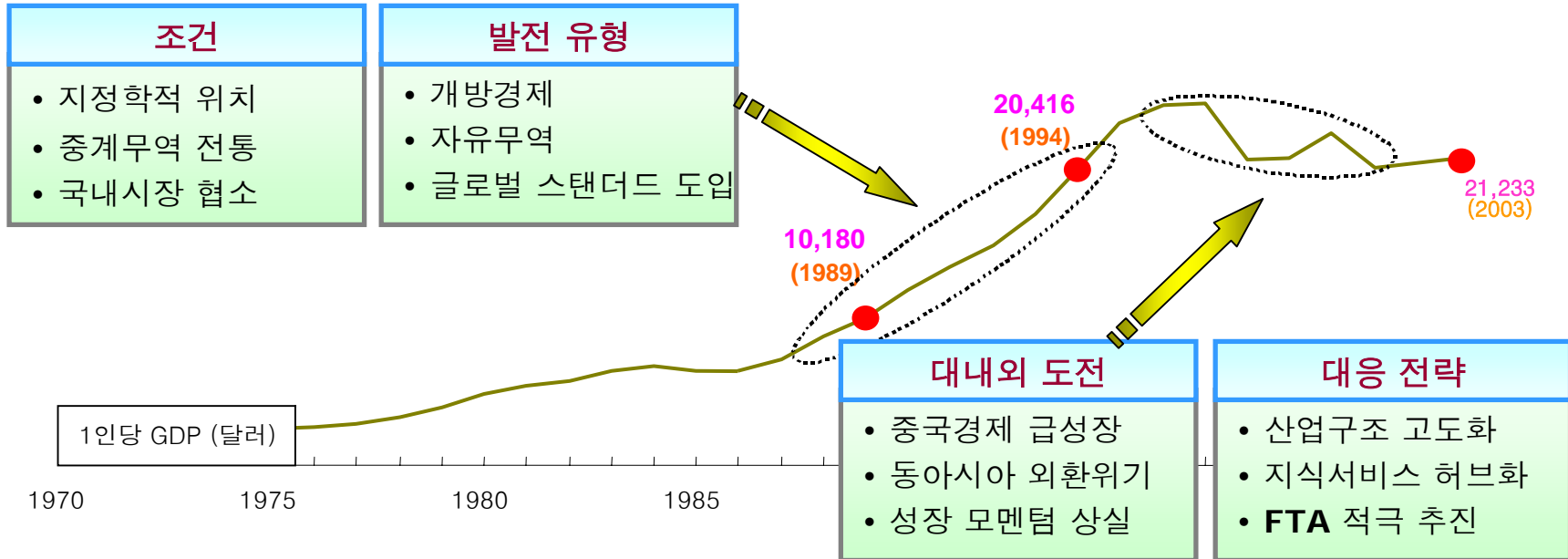


- **기업 환경** : 서유럽 중 법인세율 최저(12.5%), 용지무상대여 등 강한 인센티브
- **사회적 합의** : 국가재건프로그램(1987년) 이후 3년마다 노사정간 사회연대협약 체결
- 중·동구와 투자유치전략 차별화(디지털 허브화)

- 시** ❖ 국내경제침체는 고급인재의 해외유출에 직결
- 사** ❖ 고급노동력과 노·사·정 합의 등 강한 인센티브로 FDI 유치 성공
- 점** ❖ FDI에만 의존하는 산업발전전략은 외부충격에 취약



싱가포르: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·비즈니스 허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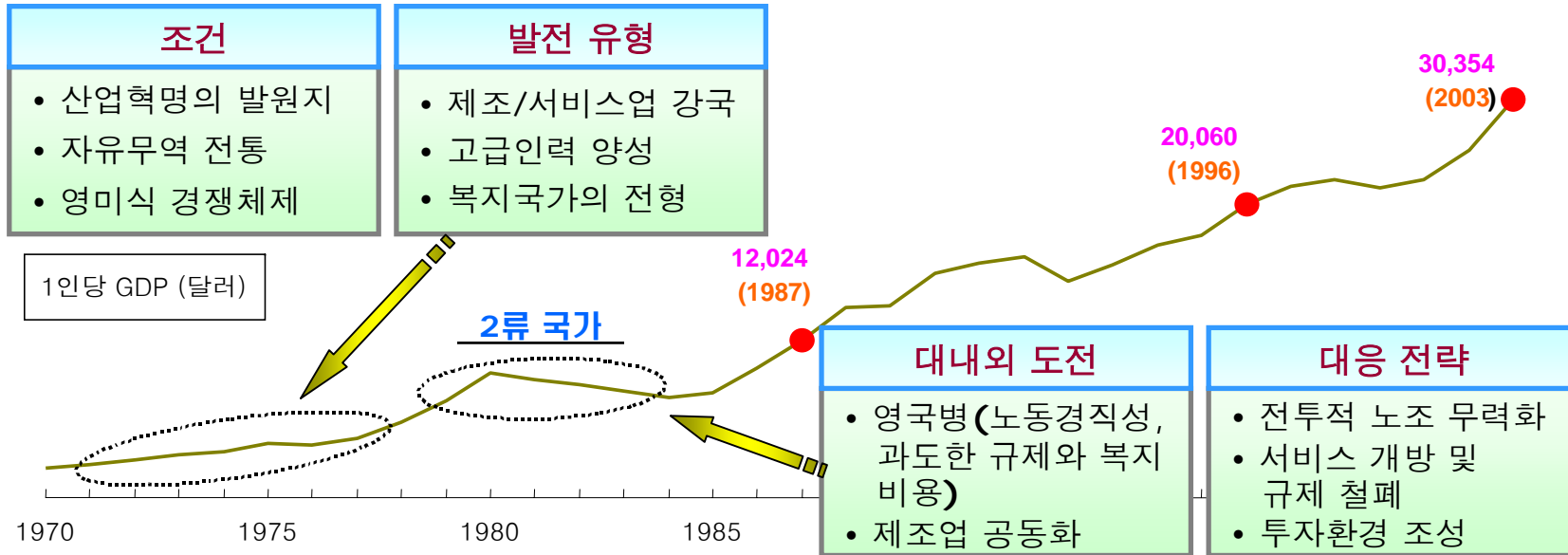


- **개방 리더십**: 영어 공용어화, 비즈니스 허브화(1990년대), 국제교육거점화(2003년)
- **성장 동력**: 금융, 교육, 의료, 생의학 등 지식서비스산업 개방 및 육성
- **경제 통합**: 동아시아의 FTA 허브화(8개국과 기체결, 15개국과 추진)

- 시사점**
- ❖ 영어 공용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적극 수용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 건설
 - ❖ 지식서비스 등 핵심 성장동력의 신속한 전환과 육성
 - ❖ FTA 적극 추진 등 동아시아 금융, 물류, 비즈니스 Hub 지향



영국: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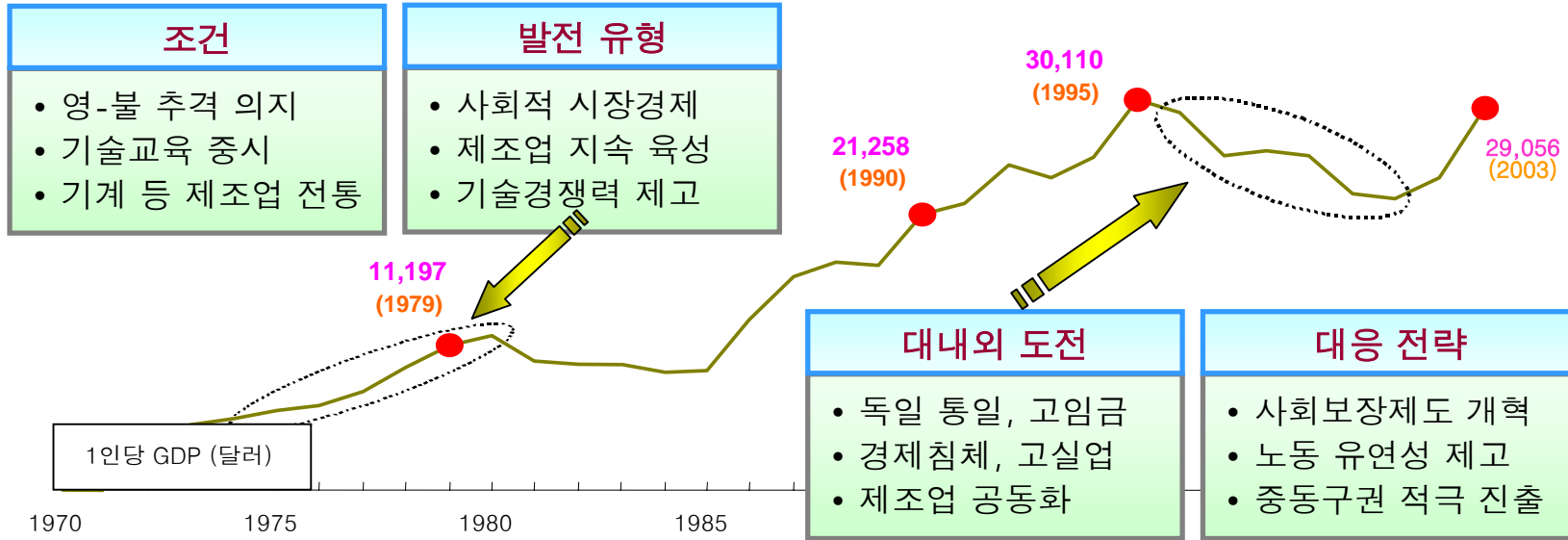


- **구조조정**: 사양산업 정리 및 해외이전으로 제조업 고용 28% 감소(1970-86년)
- **금융개방**: 외환자유화(1979년), Big Bang(1986년)의 결과 금융이 GDP의 23.7% 차지
- **고급인력 양성**: 최상위권 비율 16% [미국 12%, 일본 10%, 한국 6%]

- 시사점**
- ❖ 과거와의 과감한 단절을 통한 성장활력 회복, 효과적인 해외투자는 국부창출의 원천
 - ❖ 유연한 노동시장은 생산기반의 급격한 해외이전 방지
 - ❖ 높은 사회안전망 유지로 과감한 구조조정의 충격 흡수



독일: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 강국



조건

- 영-불 추격 의지
- 기술교육 중시
- 기계 등 제조업 전통

발전 유형

- 사회적 시장경제
- 제조업 지속 육성
- 기술경쟁력 제고

대내외 도전

- 독일 통일, 고임금
- 경제침체, 고실업
- 제조업 공동화

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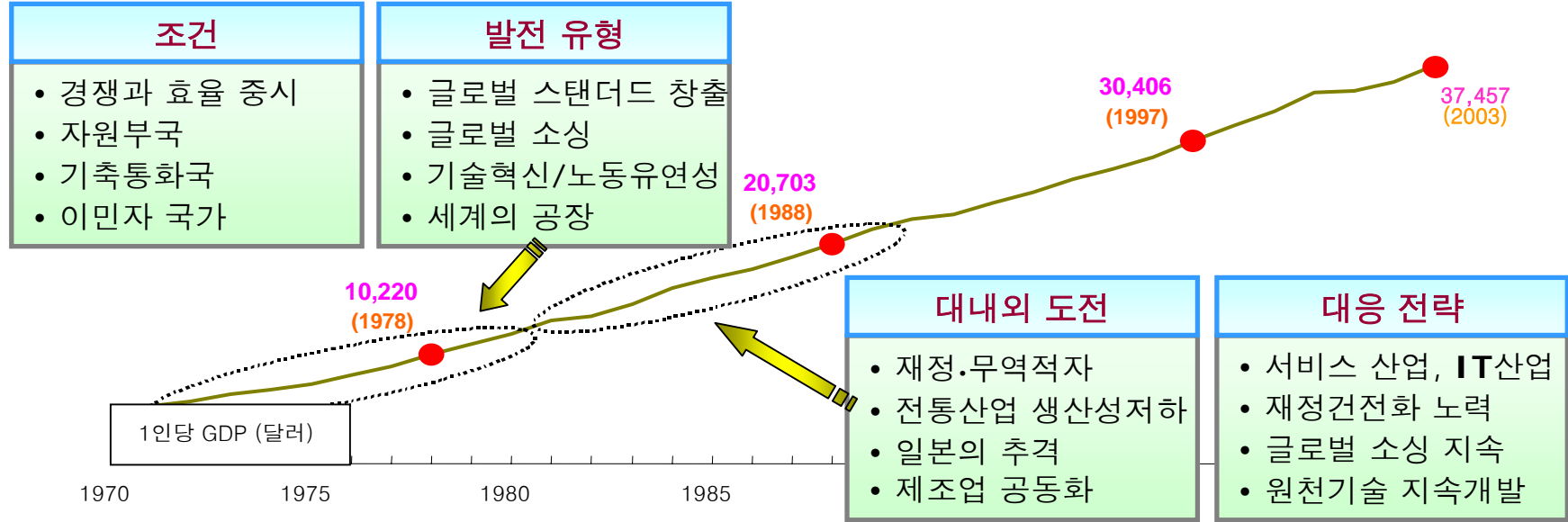
- 사회보장제도 개혁
- 노동 유연성 제고
- 중동구권 적극 진출

- **산업구조** : G7 중 제조업 비중 1위(26.8%, 1992년), 상품수출 세계 1위(1990년)
- **종합적 경제개혁 프로그램**(Agenda 2010, Hartz program) 추진
- **실업문제** : 장기실업률 독일 4.2%, 미국 0.4%, 영국 1.3%(2000~03 평균)

- 시사점**
- ❖ 기술교육 중심의 고급인력 양성은 산업강국의 핵심 조건
 - ❖ 글로벌 시대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제조업 공동화 위험 초래
 - ❖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쇄신과 국제적 위상 제고



미국: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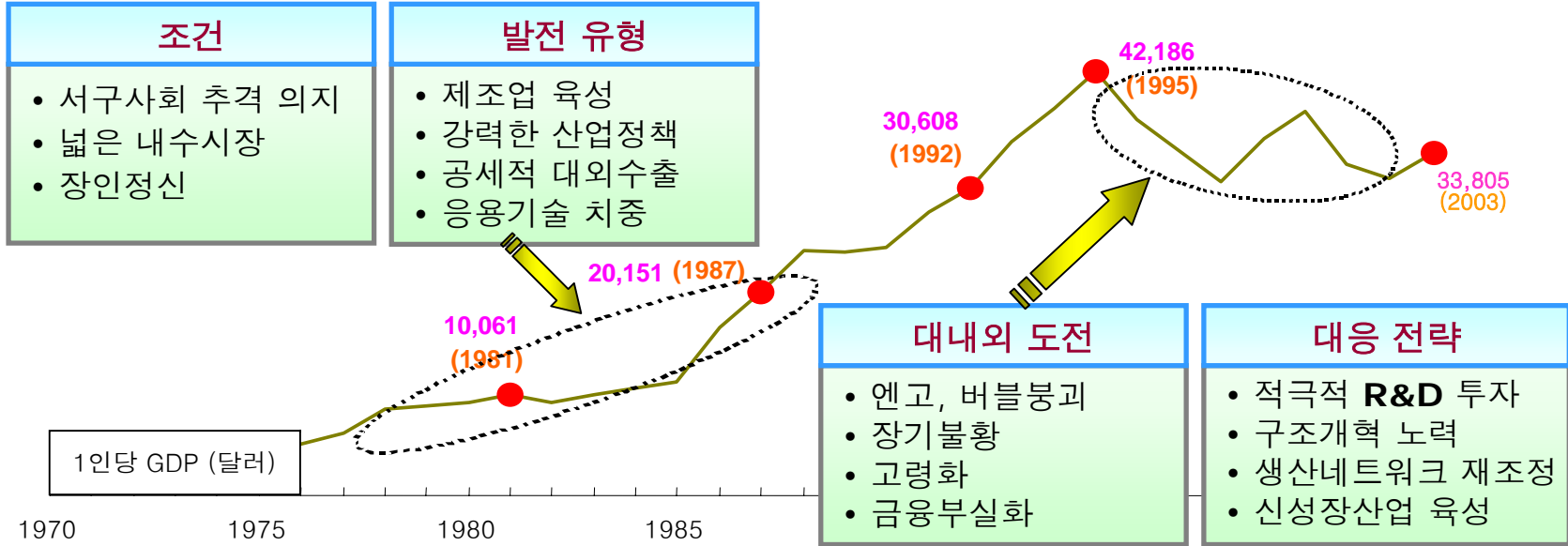


- **고급 인력** : 외국기술인력 매력도 1위(한국 42위),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73%(한국 57%)
- **성장 동력** : 생산성증가율(90년대 후반 평균) 2.49% 중 IT 부문이 90% 기여
- 경상적자(GDP대비 5.7%, 2004년) 및 재정적자(3.6%)로 불안 요인 가중

- 시** ❖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국의 이점으로 통화위기 미발생
- 사** ❖ 경쟁과 효율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 경제구조가 경제 초강국의 원천
- 점** ❖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창의력 있는 핵심 인재가 생산성의 원천



일본: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



- **정부 부채** : 2003년 GDP대비 157% (미국 62%, 독일 65%, 영국 42%)
- **외국인투자** : 2003년 GDP대비 누계 2.1% (미국 14.1%, 독일 22.6%, 네덜란드 65.6%, 한국 7.8%)
- **성장동력** : 60년대 트랜지스터, 70년대 워크맨, 80년대 반도체 등과 같은 세계적 히트상품 부재

- 시사점**
- ❖ 엔고를 전통산업 강화의 기회로 활용했으나 신성장 동력 창출 실패
 - ❖ 정치권 리더십 부족과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개혁 부진,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 지체
 - ❖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생산요소를 활용 못하면 경제효율성 저하



사례연구의 교훈

II.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?

(1) 선진국간 발전유형은 상호 수렴하고 있으며, 글로벌 스탠더드는 성장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.

사례: 독일과 일본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을 확대하고자 노력

(2) 제조업 비중이 높은 개방경제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투자부진을 초래하여 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다.

사례: 독일 기업의 급속한 중동구 진출(1990년대 후반, 투자 누계 405억 유로)

(3) 선진국이라면 강한 서비스산업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, 서비스시장의 과도한 내부 규제는 개방시 외국자본의 지배를 가져온다.

사례: 규제가 강했던 독일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1993년 EU출범 이후 영국 법률회사들의 진출 확대

(4) 지역경제통합은 시장 확대의 수단일 뿐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적 장치이다.

사례: 유럽국가들은 러시아 외환위기시 EMU를 통한 공동대응으로 금융안정 달성

(5) FDI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적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발굴해야 한다.

사례: 아일랜드는 2000년대 초 외국인투자가 급감하자 Digital Hub로 차별화



사례연구의 교훈

[6] 다양한 형태의 해외투자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내 잉여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.

사례: 영국과 네덜란드는 경제위기(1980년 전후) 이후 적극적 해외투자로 국부 창출과 서비스산업 발전

[7] IT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미래성장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.

사례: 미국 생산성 증가에 IT부문이 90% 기여, 싱가포르는 과학기술 부문으로 성장동력 전환(1990년대)

[8]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은 원천기술 위주의 부품·소재 산업을 축으로 하는 기계산업이다.

사례: 일본, 독일, 미국, 영국은 부품·소재 순수출국임.

[9]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출로 개방 확대와 노동유연성 강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.

사례: 독일(27.4%), 영국(21.8%) 등의 높은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(한국 6.1%, 2001년 OECD)

[10] 성공적인 개방과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, 치밀한 로드맵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다.

사례: 1980년대 영국 대처 수상의 산업구조조정 및 네덜란드 뢰버스 수상의 개방 리더십



선진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

선진국 사례의 교훈

- 1. 발전유형 수렴
- 2. 노동 유연성 제고
- 3. 서비스 시장 개방
- 4. 지역경제통합 활용
- 5. 차별화된 FDI 유치 전략
- 6. 해외투자 활성화
- 7. IT 활용과 미래성장산업 전환
- 8. 강한 부품·소재산업
- 9. 높은 사회복지지출
- 10. 국민적 공감대 형성



5대 구성요소

-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
-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
-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
- 세계 일류산업 육성
-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



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

- ❖ 노동 · 금융 · 경쟁 등 각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,
- ❖ 적극적 해외투자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,
- ❖ 강한 서비스산업과 부품 · 소재산업을 보유하고 IT 등 미래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,
- ❖ **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가 형성된 국가**



5대 구성요소별 우리의 수준

III.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?

글로벌 스탠더드 정착

- ✓ 세계적 관행이 통용되는 비즈니스 환경
- ✓ 인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
- ✓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와 공정한 시장질서
- ✓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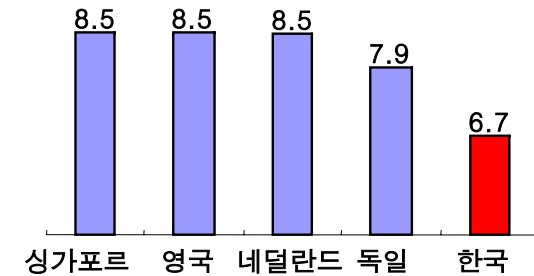
능동적 세계시장 참여

- ✓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
- ✓ 교육, 의료,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
- ✓ 다자 및 지역 경제협력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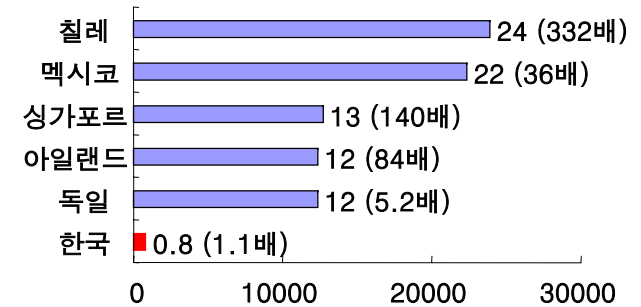
글로벌 생산요소 활용

- ✓ 세계적 R&D 센터 및 대학 유치를 통한 해외 고급인력 활용
- ✓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FDI 유치 촉진
- ✓ M&A투자 등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여유자금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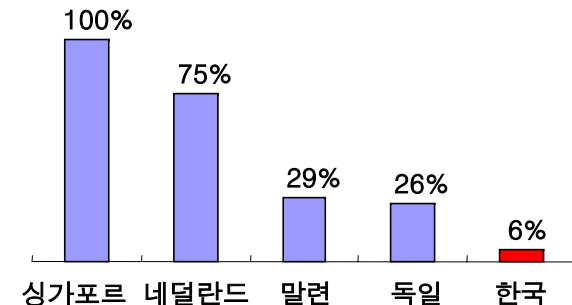
비즈니스 환경(2000-04, 지수)



경제블럭화 규모(조 달러)



해외직접투자 비율(GDP대비)





5대 구성요소별 우리의 수준

III.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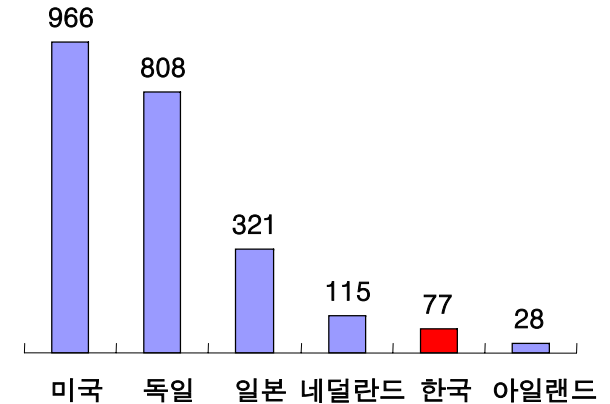
세계 일류산업 육성

- ✓ M&A, 전략적 제휴 등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지원
- ✓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산업구조 고도화
- ✓ 국제분업체제 내의 안정적 편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
- ✓ IT기술발전 효과의 확산과 미래성장산업의 육성
- ✓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제품 및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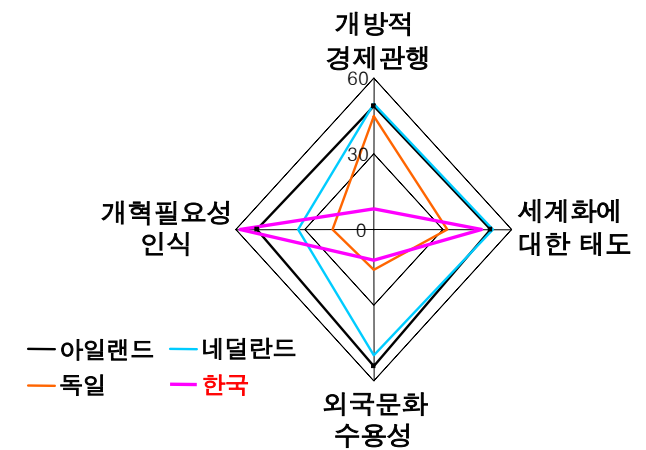
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

- ✓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 구조조정 지원책 수립
- ✓ 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책임감
- ✓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의 확대와 개방적 사회문화환경 조성

세계시장 1위 품목 수(2002)



개방에 대한 인식 및 경제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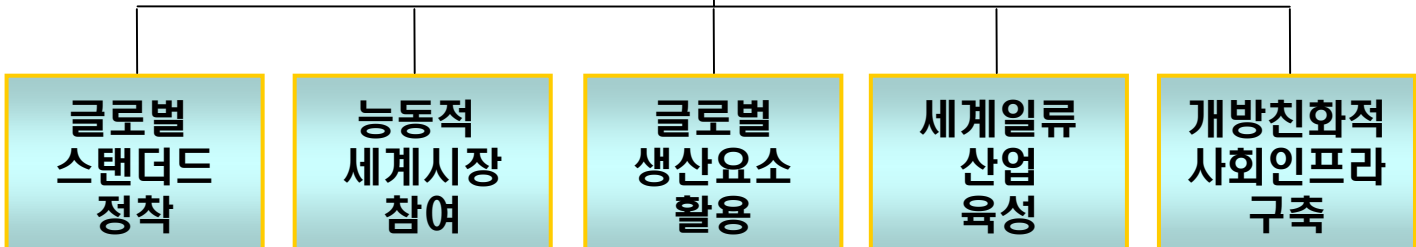


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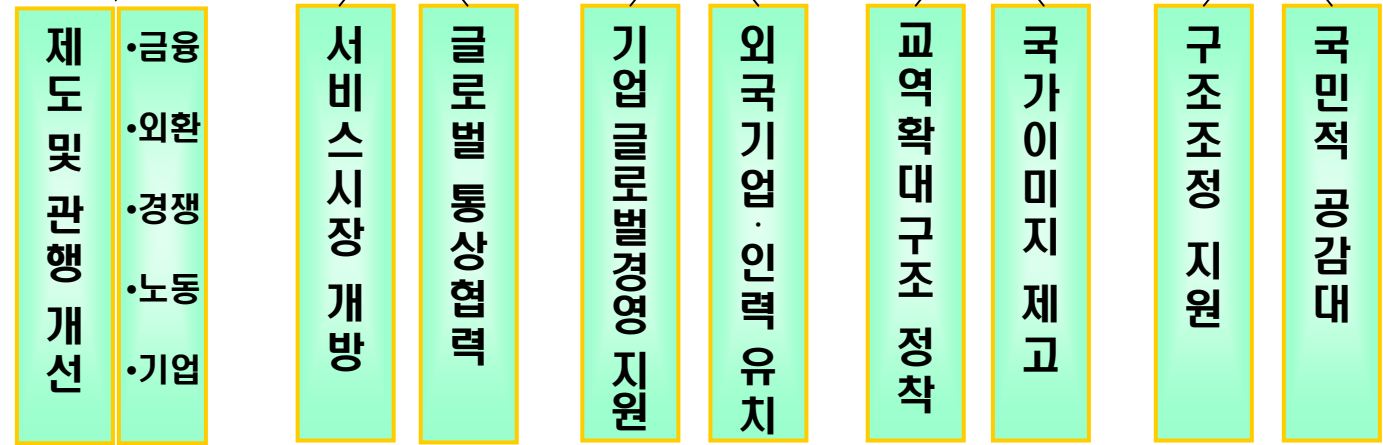
목표

선진통상국가

5대 구성요소



추진과제



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
(재경부 보고)

글로벌 네트워킹
(산자부 보고)

사회인프라
(농림부 보고)



●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●

감사합니다.